朝鮮日報

夕刊

本紙朝夕刊十頁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進樞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振替京城二八〇〇番 電話光化門六〇四・一八七九番

社說

再次篤志家의 奮起를 促함

一

最近 우리네 貧弱한 敎育界를 爲하야서 莫大의 巨財를 喜捨한 篤志家가 續出하는中에 安州의 金仁鎬氏와 濟州의 金永根氏는 그네들의 代表者로볼수잇거니와 昨今에와서 敎育界의 積極的 支持를 快諾한 朴泰鉉 爺氏는 또한 드물게보는 篤志家의 一人이다 今春以來 五山高普의 發展과 信明學校의 確立이 幾多有志의 援助로 말미암아 가지 成就함을 보앗고 이번에 또다시 明新校의 喜消息을 듯게되니 웅숙이려는 私塾界에 잇서 一縷의 새活氣를 더하는 觀이 업는것이 아니다

二

우리朝鮮人에게 敎育이 얼마나 緊急하냐하면 마치 飢渴者에게 飲食이 時急한것과 가트니 現代文化에 뒤지고 또한 不識丁하는 文盲이 全人口의 八割을 占領햇다는 놀라운 數字로 보아서만이 아니라 一個人으로서도 오늘날과가튼 激烈한 競爭場裡에서 生存을 하려 할진대 반드시 먼저 現代的 敎養이 잇서야만 할것은 말할것도 업다 現代敎育制度의 缺陷과 不備를 모르는바아니나 敎養의 飢渴이 甚한 우리로서는 敎育의 質的向上보다도 量的普及을 일층더 늣기게 되는바다。 初等中等의 專門할것업시 敎育機關의 不足으로 해서 來日社會의 主人公이될 有爲한 青少年들이 文化圈外로 아주驅逐을 當하는 悲慘한 現狀은 우리敎育界에잇서 얼마나 痛歎할바냐

三

우리敎育機關의 大多數는 官公立에 屬하고 私立은 極히 적으며 所謂 專門敎育에 이르러는 일층더 甚하야 純然히 우리네 손에 依하야 經營하는 私學으로는 오즉 金錤中翁 兄弟의 普專一校가 잇슬뿐이니 二千餘萬이나 사는 半島로서 이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멀리 先進國인 歐米의 例를 들지 마자 갓가이 比律賓으로 말하드라도 不過一千餘萬人口로되 私立大學이 二三이 된다는 것이 아니냐 敎育이란 그 性質上 國家에만 依賴할바 아니라 人民이 반드시 自進하야 그 事業에 參加努力하는데서만 비로소 完美를 期할것이니 그럼으로 朝鮮人의 敎育에 잇서서는 朝鮮人이 스스로 奮發精進하지 안허서는 아니되겟다

四

무슨事業에든지 아니 그러리요마는 敎育事業에 잇서서도 物資의 實力이 必要함으로 吾人은 이를 財產잇는 篤志家에게 期待하지 안흘수업다 朝鮮人이 아무리 貧弱하다하드라도 겨우一校의 專門과 幾個의 中等校밧게 더設立하지 못하리만큼 無力한것은 아이니 이는 아죽도 이가튼 意義잇는 文化事業에 對한 一般人의 無理解 더욱이 財產家의 無自覺 無反省에 基因한바 크다하겟다 財產家된이는 이 點에 對하야 今後 좀더 自覺과 反省을 가저 敎育界를 爲하야 努力을 애끼지 안하야 할 것이며 一身과 一家의 計만을 꾀하지말고 될수잇스면 同胞와 社會의 公益을 도라보아 奉仕 一的 人物로 永遠히 살기를 새삼스러히 다시 付託해둔다。

擴大되는 西班牙의 暴動

事態急迫으로 全土에 戒嚴令!

鐵橋占領코 政府應援兵遮斷

叛徒死刑法案起草

【마드리드六日發聯合】 五日부터 政府軍과 激烈한 戰鬪를 繼續하고잇는 아즈드리아의 叛徒는 六日午後 레온·오뷔에드間의 鐵橋를 占領하야 政府軍의 應援의 消路를 遮斷하야 오뷔에드의 戒嚴令本部는 累卵의 危境에 處하여잇다 바스크地方에서도 罷業으로 鐵道는 全線이 不得已 運轉을 中止하게되야 政府는 事態의 急迫에 繼하야 全國에 戒嚴令을 發布하는 同時에 叛徒는 死刑에 處할 法案을 起草中이라고 한다

【마드리드六日發聯合】 西班牙政府는 六日夜 드듸여 全國에 戒嚴令을 布告하엿다 事態는 益益險惡化하고잇다

政府軍과 叛徒側 衝突益益激烈化

死者百十名、負傷者四百名

政府의 非公式發表

【電通마드리드六日】 西班牙各地의 革命的 騷擾에 依한 死傷者는 이미 其數五百以上이라 고 算하는데 六日午後當地東北郊外에서 政府軍은 叛徒側과 衝突하야 死傷者는 增加되고 形勢는 再惡化되엿다

【電通마드리드六日】 非公式計算에 依하면 西班牙各地의 騷擾로 因한 死傷者는 六日午前 一時까지에 死者百十名 負傷者四百名以上에 達한다고 한다

카타로니아軍과 西國政府軍衝突

【발세로나七日發聯合】 七日 獨立宣言을 發表한 關係로 드듸 발세로나政府가 카타로니아의 여政府軍과 카타로니아軍이 對立하야 드듸여 西班牙는 全然 內亂巷化하엿다

카타로니아 駐在政府軍司令官은 六日深更에 最後의 通牒을 發하야 카타로니아青年黨에 對하야 발세로나市街의 統制를 中央軍에 引渡할 旨를 要求한데 對한 카타로니아獨立軍은 斷然이를 拒否한 까닭에 政府軍은 戰時狀態를 宣告하야 七日早曉부터 발세로나政廳의 砲擊을 開始한 一方 카타로니아民衆에 對하야 斷乎 政府應援軍의 進軍을 阻止할것이라고 猛烈한 激勵放送을 하는 放送局도 砲擊되야 死傷者는 자못 多數에 達할 模樣이다

카타로니아 共和國成立

獨立宣言發表

【발세로나 六日發聯合】 카타로니아 自治共和國 大統領 콤파니노스氏는 執政評議會 決議에 基하야 六日드듸여 카타로니아地方에 獨立政府를 樹立할旨를 宣言하고 新國家의 名稱은 西班牙聯邦카타로니아共和國이라 決定發表하엿다 그런데 카타로니아는 발세로나·헤로나·레크다·타라고나의 四州로되야 一九三二年九月十五日中央議會의 承認을 어더 自治를 許容된것이다

모로코統監辭職

【탄질六日發聯合】 西班牙保護領 모록코統監 오부에로氏는 現內閣에 反對를 表明하야 六日辭表를 提出하엿다 모록코各地勞働組合은 本國의 革命的 總罷業에 呼應하야 테투안스라、메리아等 主要都市는 겨우 軍隊로써 秩序를 維持하고잇다

米空軍의 偉容

(오오드·포인트·컴포―드·버―지니아州) 發聯合 「五十隻의 飛行船이 잇스면 日本을 二日間에 全滅식힐수잇다」 고 去二日 大統領直屬의 空軍委員會席上에 豪語한 월리암·밋첼將軍의 演說은 單純히 豪語로서 將軍의 不饒舌言辭라고만들일수업다 米陸空軍을새로 參謀本部直屬으로 GHQ空軍이라하야 西는 加州로부터 東은 버지니아에 이르기까지 全航空陣을 總動員하려는等 近代戰에잇서 特히 空軍의 可能性을 極度로 發揮할수잇도록 着着 準備中의 米國에서는 太平洋을 橫斷할수잇는 大航空隊編成도 決코 實現性 업는 空想은 안일것이다

寫眞은 去九月七日오오드·포인트·컴포―드 神에서 航空艦 「사라토가」 號를 中心으로 行한 防空大演習

上左 사라토가艦上에서 統監中의 스탠드리 提督 除行 (八十九機가 艦上에 드러잇다)

上右 사라토가艦上의 同艦搭載機 下 同艦搭載機의 大編隊

急迫한 現地情勢 軍警對立이 激化

森重理長의 現地情勢報告로

拓務省內空氣忽變

【東京電話聯合】 拓務省에서는 過般現地視察에 赴한 森重計劃課長이 六日午後四時五十五分東京驛着列車로 歸東하엿슴으로 그를마저 田中拓務次官、生駒管理局長、北島殖産局長、高山拓務局長以下 各課長、省內高等官 全部가 拓務省에 參集한 後 먼저 森重課長으로부터 現地情勢에 關한 報告를 聽取하엿는데 現地情勢는 其後警察官을 筆頭로 全職員은 動搖되야 情勢는 文字대로 危境에 瀕하야 現地軍과 間에 何時如何한 事態를 惹起할는지 아지못할 狀態이다 또 日本內地에 傳해지지 안흔 現地의 急迫한 情勢의 說明이 잇슨다음 種種 意見을 交換하엿다

이 報告를 듯고 비로소 거지업는 現地의 情勢急迫에 새삼스러히 驚愕하야 現地에 對한 從來觀察을 變更하게되엿다 이런 狀態에 일은 以上 改正案中 憲兵司令官이 警務課를 兼任한다는 것을 取消하고 文官으로하지 안하면 現地의 情勢를 緩和식힐수 到底히 바랄수업다는 結論에 到達하야 一同은 悲痛한 顏色으로 九時後에 散會를 맛첫는데 七日午後四時五十五分 東京驛着列車로 歸東하는 八田警務課長을 마저 同協議會를 열고 後 岡田首相에 對하야 最後的 決意를 促하기로 되엿다

◇八面鋒◇

◇ 西班牙全土에 戒嚴令宣布、法令만으로도 事態가 鎭靜된다하면 簡單한 일。

◇ 東京市電 마츰내 再罷業을 開始, 山下局長이 下山하기前에는 解決이 어려울모양。

◇ 大阪에도 「부리인즈리스트」 初代의 결손은 누가되라는 고。

◇ 海底金으로 陸上金을 낙근 큐리號事件, 자칫하면 獄中食 먹을사람이 생길듯。

◇ 興百年 동은 沈香까지 건지겟다고 야단이니, 水難地해의 避難準備가 必要。

關東廳態度反映에 拓務省俄然硬化

放置하면 政府에 影響

【東京電話聯合】 在滿機構改革問題는 過般閣議에서 形式은 外務省案 內容은 陸軍省案의 所謂 政府의 折衷案으로 表面上 最後的 決定을 보앗스나 其實은 도리혀 現地의 對立에 拍車를 加한 狀態로서 拓務省案을 絶對支持하는 態度를 取해온 關東廳側을 刺戟하야 政府案은 三十年의 歷史와 政權을 가진 關東廳의 立場을 抹殺하는것이라는 見解下에 關東憲兵司令官의 警務局長兼任에 反對하야 現地首腦部는 職員代表를 聯絡團名目으로 渡東식혀 各方面의 諒解를 求하고잇섯스나 이問題에 對하야 岡田首相은 依然히 拓務案은 陸軍案에 對立되여도 一步讓決定된 以上 이에 服從하는것이 官吏의 本分이라는 見解下에 內外 重大時期에 官吏가 突然히 소란한 소리를 하는 것은 遺憾이다 맛당히 大局的으로 一日이라도 速히 政府의 意를 諒解하야 服從하기를 希望한다 하야 大局論만을 希望한다고하야 當面의 問題解決을 爲하야는 何等具體案을 提出치안함으로 現地狀態는 益益惡化할뿐이라 日本內地는 信賴할수업다 하야 拓務省까지도 敬遠하는 見地로서 獨自의 自衛的立場에서 悲壯한 決意를 堅固히하야 萬一에 備코저하고잇는 等 日本內地에서 想像할수도 업슬만큼 緊張을 呈하고잇슴으로 中村關東廳財務部長을 비롯하야 旅順大連等의 關東廳職員代表에게 詳細히 現地의 報告를 들은 拓務省壯年課長以下事務官은 岡田拓相以下 突然히 自重的 態度를 取하는 首腦部에 실증을내여 各其 惡의 事態에 處코저 協議하야 重大決意를 鞏固히하는 中 六日 森東警務局長의 現地視察報告를 들으면 現地情勢는 더욱 激化한것이 明白하다 右 報告에 甚하야 壯年課長들의 決意에 感動되여 拓務省首腦部도 形勢의 急迫함을 重視하고 從來의 態度를 一變更하고 이亦是 重大決意를 한 模樣으로 七、八兩日間警務局長을 마저 開催되는 拓務省의 會議는 重大岐路에 섯것이라고 보이며 首腦部는 只今關東廳側及 省內壯年側과 合流하야 局面打開를 策할수밧게업는 터로 政府로서 무슨 解決策을 取하지 안는限 政府自體가 重大 危機에 處하게될것으로 보인다

伊首相뭇소리니氏 對佛親善協定發表

國際軍縮會議潰滅도 宣言

【電通미라노六日發】 뭇소리니 伊首相은 六日 미라노 中央公園廣場에서 二十萬의 聽衆에 向하야 熱辯을 演說하엿는데 今日까지 秘密에 附하여 잇던 伊太利外交方針의 新展開를 公開하고 베르사유條約改訂派에 對한 同情的 態度의 放棄、獨逸軍備平等權要求에 對한 支持中止 等을 包含한 對佛親善協定의 成立을 發表한 同時에 國際軍縮會議의 潰滅을 宣言하엿다

政府所有米 一千百六十七萬石 (九月卅日現在)

米穀統制委員會에서 荷見局長

米穀事情을 詳細說明

【東京電話聯合】 農林省의 米穀統制委員會는 六日午後一時半부터 農相官邸에서 開會하고 山崎農相의 人事가 잇슨다음 荷見米穀局長으로부터 米穀事情에 關한 說明이 잇고 다시 過가리 百萬石의 政府米買入과 米穀事情의 諒解說明이 잇섯다 米穀事情의 說明은 大體如左하다

一、政府所有米現在高 (九月卅日)

昭和六年產米	二〇八、三四一石	
同 七年產米	三七六、一三四	
同 八年產米	一〇、八三〇、三八八	
小計	一一、六九九	
一、日本內地白米	九六、六四一	

一、朝鮮八年產米 九九、六八 一、臺灣八年產米 九九五 一、九月二十一風水害로因한政府米被害(大阪、神戶、岡山各米穀事務所所管)四五、三〇石

一、日本內地의 米穀輸移出入高 昨年十一月末以降今年九月三十日까지 (前年比較)(△는減)

輸入	一五二、一五一	△一五六、六九八
移入 朝鮮米	八、四四三、九九	一、一六四、一六六
臺灣米	四、四四三、〇〇〇	一九九、六二八
輸出	四四四、四四九	一三二、九一〇
移出 朝鮮에	二三、九九九	△四四、五三三
臺灣에	五〇、四三四	一六
樺太에	一八五、八二五	一六六、六六一
南洋에	一三、四四一	△五三三

一、昭和九年度上十個月(昨年十一月부터今年八月末까지)日本內地의 米穀需給實蹟

▲供給

前年으로부터持越高		六、九〇〇、六九八
八年生產高		七〇、八二〇、一〇四
輸入		一五二、一五一
移入 朝鮮으로부터		七、七〇三、三三三
臺灣으로부터		四、一四一、三九
再輸移入高		一〇〇
合計		九一、九六七、八〇四

▲需要

輸出		四四四、四四九
移出 朝鮮에		二三、九九九
臺灣에		五〇、四三四
樺太에		一九九、二〇一
南洋에		一二〇、五四八
計		
九月末現在高		
差引消費高		五六、九九九、六八六

一人當平均消費量九斗八升七合(前年은九斗四升八合)

一、季節關節賣渡 昭和九年八月十三日 約九十五萬石(豫定數量百萬石) 同 八月三十日 約五十六萬石(豫定數量七十萬石) 合計 約百五十一萬石(豫定數量百七十萬石) 以上入札形式으로 賣渡한殘高十九萬石은 五月以降八月末까지에 地方公共團體、產業組合、農會、養蠶組合에 對하야 全部賣渡한 結果豫定數量全部를 賣渡하엿다

世界漫史 第一回米作豫想

農林省發表 九月二十日現在 第一回日本內地米作收穫豫想은 五千七百二萬六千石이니 二十一日 關西大風水害로 因한 減收豫想이 四百六十七萬二千石으로 事實上의 豫想은 五千二百三十五萬四千石이니 大正二年以來의 凶作이며 農林局發表 第二回朝鮮米作收穫豫想은 一千六百七十一萬一千石이라 最近 平年作에 比하야 도리어 三十一

軍部小册子問題

陸軍省에서는 非常時에 打開하는 民衆에 對하야 啓蒙的 目的으로 「國防의 本義와 國防國策強化의 提唱」 이란 題目의 小册子를 發行한 바 其內容은 個人主義的 經濟機構를 排斥하고 統制主義的 經濟를 主唱하는 것으로 各政黨 貴族院等方面에는 多少不好의 感情을 이르킨이 업지안하야 閣議上 林陸相으로부터 그 實現을 꾀하는것이아니라고 辯明하엿다 한다

北鐵滿鐵의 合同

北鐵讓渡交涉이 成立함의 北鐵의 管理問題와 多年間懸案中의 滿鐵改組問題를 一時에 解決코

關東軍一步讓步

在滿機構改革에 對하야는 關東軍當局은 絶對로 軍部案을 拒否하야 方面으로 軍部案을 推行 阻止하는等 一大總辭職을 斷行하고 잇는 등 一大總辭職을 하고있거니와 드듸어 關東軍側에서도 憲兵司令官의 警務局長兼任을 廢止를 決意하야 一步의 讓步를 마지못하얏다。

西班牙제네스트

西班牙에는 삼파-驛立內閣의 倒壞로 因하야 俄然政治的不安을 招致케되고 그以後 더구나

카타로니아獨立

西班牙全國의 제네스트는 更擴大하야 五千의 死傷者를 生하엿다 카타로니아自治州에서는 五日最高執政評議會의 緊急會議를 열고 西班牙로부터의 完全獨立을 宣言하얏스니 그 宣言要旨를 듯건대 新國家는 第二西班牙共和國이라고 稱하고 首府는 暫定的으로 발세로나에 置하고 臨時大統領은 西班牙共和國의 前首相아자니아氏를 推擧한다는等으로써 今後카타로니아對西班牙 內亂의 多數가 되리라 一한다

海軍會議米對策

三日白堊館에서 開催된 軍事對策協議會는 루스벨트大統領以下 各方面의 首腦者로 構成되야 廷海條約은 더 繼續할 必要가 업스나 一率的 廿% 의 海軍力 縮減에 同意하는 同時 日英米間五五三 比率을 維持할 것으로 決定되엿다。 同日 米國政府는 自國의 國際會議에 스탄드레 作戰部長과 再開될 海軍豫備會議 에 派遣하겟다고 公表하엿스니 同 國際會議에 米國政府에서 今番의 豫備會商을 그얼마나 重要視하고 잇는지 推測할수잇는일이라고 한다。

休日氣配

▲株式 依然押目買로서 支持되나 目先는 材料期待의 氣配商狀 氣配小强

大新 八、三〇 東新 一三〇、八〇 鐘新 一二四、〇〇 日產 二三、〇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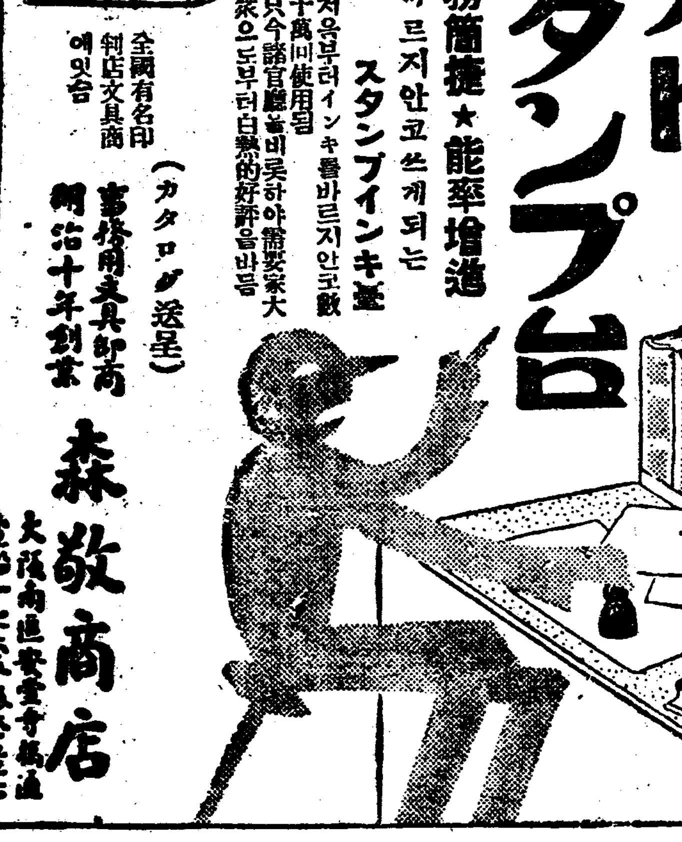
▲期米 六日米穀統制委員會에서 二百萬石拂下를 承認 內百萬石은 十六日拂下키로 決定 當限은 七〇錢乃至一圓低 中先限은 三十錢乃至五十錢低를 唱 그리고 이番拂下米中朝鮮米가 얼마나 包含될지는 注目된다

▲綿絲 不贊

米日爲替

【紐育六日發聯合】 今日米日爲替 賣 二十八弗八二 一低 買 同 八〇 一低

今日本紙四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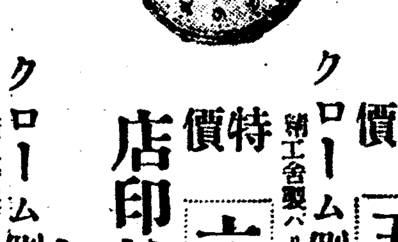


ベストスタンプ台

事務簡捷★能率增進 바르지안코쓰게되는 スタンプインキ塗 처음부터インキ를바르지안코數十萬回使用됨 只今諸官廳을비롯하야需要家大衆으로부터白熱的好評을바듬 全國有名印判店文具商에잇슴 (カタログ送呈) 事務用文具卸商 明治十年創業 森敬商店 大阪南區安堂寺橋通 電船一七六五 振大九九七

デパートに小賣店に 高級萬年筆 萬年筆と金ペン 店印捺印者ニ限リカタログ進呈 取引銀行 山口銀行玉造支店 三十四銀行玉造支店 シーズン・イーズ・ペン指定マーク入 萬年筆製造本舖 辰己製作所 大阪市東區山之下町一二九 電話東94・六〇四三番 振替大阪七五三〇七

冬物荷揃 商報送呈 優良メリヤス 內外產 毛メリヤス 見本陳列 サウンド靴下 大阪市東區唐物町心齋橋筋 株式會社 信保信商店



卸店의臨時特賣

特價 クローム側十形アンクル七寶石入 精工舍製パリス形リボン付 五圓五十錢 市價九圓五十錢

特價 クローム側九形アンクル七寶石入 精工舍製パリス形リボン付 六圓五十錢 市價十圓五十錢

特價 クローム側八形アンクル七寶石入 精工舍製パリス形リボン付 七圓五十錢 市價十一圓五十錢

店印捺印者ニ限リ 卸カタログ進呈

各種時計輸入卸問屋 大阪市南區安堂寺橋通三丁目 岩瀨義一商店 通信販賣部 振替大阪七五五番 電話船場三〇七七番

強制調停遂決裂 東京市電再罷業
市側과從業員側의意見相衝
七日始發車부터斷行

【電通東京電話】 동경시전쟁의의 강제조정위원회는 륙일오후열한시오십분부터개회하고 길전위원장은 금로이합체감안(勞務案)을 조정으로제출하얏든바 동경시측에서는동의하얏스나 종업원측의위원세명은 반대하얏슴으로 투표채결한결과 조정안찬성자사표(시측위원셋、중립위원하나)동반대사표(종업원측위원셋、중립위원하나)의 동수가되야 길전위원장은 조정찬성의한표를 던저 조정안은성립을보앗스나 종업원측은 극력반대를강조하야마츰내칠일 오전한시사십오분에 결렬되얏다 시전쟁의조정위원회는 이리하야결렬이되얏슴으로동교본부는 칠일오전한시오십분에 파업단행의지령을 발하야재차총파업으로드러갓다

【電通東京電話】 강제조정위원회결렬의결과 칠일오전한시오십분에 동교본부는 첫차부터 다음과가티 제이차『제네랄스트라익』결행의 지령을 발하얏다

一、칠일의첫차부터 전선일제히 총파업을결행하라
二、전직장롱성(全職場籠城)의 전술을취하라
三、비업무롱성(非業務籠城)의 전술을취하라
四、수뇌부의 지령이잇슬때까지 파업을지속하라
五、단독행동을 일체끈코 지령에의하야 모든행동을취하라

【電通東京電話】 동경시전(市電)최종의 강제조정위원회는 륙일오후열한시 오십분부터 개회하고 길전(吉田)위원장으로부터 조정안을 제출하얏스나 종업원측에서 반대하야 드듸여칠일오전한시사십오분에 결렬되얏다 동경시측에서는 동의하얏스나 동교(東交)본부는칠일의 시발차부터(스트라익)을 결행하도록지령을 발하엿다

處處에罷業團 警官과小衝突

【東京電話聯合】 동경시전쟁의조정위원회는 륙일오후 열한시오십이분에 이르러 개회하고 길전(吉田)위원장으로부터 타협안을 내엇스나 종업원측에 모다 각각 양보를구하엿스나 모다 자설을 고집하야 칠일오전한시 이십분에 이르러완전히 결렬되엿다 이에동교(東交) 수뇌부는곳 『제네스트』의성명을발하야칠일의첫전차부터 다시파업에 드러갓다 종업원들은각각 부근에롱성하야철야하고오전 다섯시에출근하는 종업원과 합류하야일러 에롱성하고 잇서서 처처에서경찰과작은충돌이잇스며검속자를 내고잇는데공기가매우험악하다 전번『제네스트』에합류하엿든 일교(日交)는 금번에는 불참하고임시 채용의운전수등과 전보로불러온 직원등에의하야 오전여섯시부터 전차와『뻐스』를 각각운전하나 대수가 매우적어서 마침일요일이라 정류장마다 대혼잡을이루고잇다

異鄉災地에핀 救助美談가지가지
(8)身命을不顧하고老弱을救助
勇士들의義擧嘉行

(…리역에서)

【大阪】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하는 위긔일발의 암담한생지옥가운데서 오히려친착하야 인간의 아름다운성정을 발휘하고 잇슴은 실로인간긔록의 영원한 광명을 찬양할바일것이다 이번 대판 풍수해중에 조선인형제로 아름다운 덕행을남기어 대판부 당국에서도 표창코저 하는이가 잇다 그중몃분을소개하면 아래와갓다

◇

제주도 제주읍에 본적을두고 대판 차화구신가정(此花區新家町)에거주하는 김성태(金聖泰)(二五)씨는이십일일아츰물연히물이 밀려와 간신히 가족만을피신식히고 다시가장을꺼내려고 오륙척이나 침수된가운데로 지나든중 오륙세가량되는 어린애가떠내려가는것을 건저구조하려 하엿스나 건진지물과 사십분여축엇다 어느집에가인지 일흠도몰을 귀여운어린목숨의 가엽슨죽엄을 애시기며 그호잡통에경찰에고하엿더니 당장 손을쓸수가 업다고하야 사람도 거처할자리가업는 좁은방에 고히뉘여두기를 이틀반만인 이십삼일오후에 시역소에 넘기엇다

◇

제주도제주읍내에본적을두고차회구서야상지정(西野上之町)에 거주하는고창년(高昌年)(三一)씨는 이십일일오후세시경 자기집의침수가사척가량이나되여 가족들을 부근다리 우에세웟다가 다시위험하야 부근소학교로 피난중륙십여세난 대판로파가 칠팔세되는 어린애를업고 물중뎅이에빠저 살려달라고 애쓰는것을보고뛰어들어가 어렵게 건저낸는데 그때문에 그는하수도구녕에 발이빠저 외인편발이 꺽거젓다

◇

가튼제주도에 본적을둔 차화구서구조(西九條)김인규(金仁奎)(三一)씨는 이십일일 아츰여덜시 집에물이들어 피난중 부근 철교부근에서 칠십세가량된로파와 어린애를업은 삼십세가량된녀자가 물속에빠지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건저내이엇다

◇

가튼이십일일 대정구 남천미정 대천방(南泉房)압빈터에도물이 무섭게밀려 들어와순식간에 집이모다잠기어 그곳에 살든조선인의 부락도 침수되여 남녀늙은이와 어린것들이 미처 피하지못하고 헤매이고 잇슬때에네장정이 나서서 기민하게도 물에 떠내려오는 큰재목을잡어에서 떼목을지어 모다 올려태워 자칫하면 사십여명이 전몰사 하엿을것을 구해 냇다그 용감하고 기민한네네은 경북대구(大邱)에 본적을둔김오윤(金五潤)윤인조(尹仁祚)백유효(白潤孝)도경북김해군 명지면평성리(金海郡鳴旨面平城里)에본적을둔김병은(金炳殷)씨등네분으로그곳동포들간에만흔칭송을받고잇다

◇

경남김해군명지면평성리(金海郡鳴旨面平城里)에본적을두고대판 대정구남천미정(大正區南泉尾町)에서거주하는 김종은(金宗殷)씨는 이십일일 아츰 큰물가 밀려들어와 여섯자가량이나 침수하야 여간해서는 피할길을 찾기가힘든때에 피난중에부근삼헌정(三軒町)과자상점주인 팔전모(八田某)가 병으로마음대로것지도못하고그처와 어린아들딸 네가지 네명이 어쩔줄을몰으고 구조를 애원하고잇는것을 은조선동포 한사람과 가치 위험한가운데무사히 구조하여주엇다

東京에서말성된 朝鮮의"明道"誣女
岸博士를中心한例의明道會
警視廳에서又復取調

회장을 안일태(岸一太) 박사로 두고 에로와그로의 비밀에쌔혀잇는 사교명도회(明道會)의 정체가 드듸어 백일하에폭로되엇다 문제의인물 안일태박사는 지난구월중순 경시청에 검거되엇는데 그는소화오년 경시청고등과에 검거되엇다가 일후는다시 명도회에 관계하지아니하겟다는 언질을주고 예심면소가되엇는데 그뒤다시 조선으로부터 무당최공진(崔空進)(六○)을데려다가 명도회의포교를 시작하엿다 장소는 여시동경시삽곡구대화전(澁谷區大和田)명도회본부요 이십여개나 되는방을 신전(神殿)배전(拜殿)령매전(靈媒殿) 신령전(神靈殿)등괴상한명칭을 붓치어노코 무당최공진을 식혀 괴상스러운 주문을외게하고 신자에게는 그것이 신의소리라고 속이고 또다수한 막(幕)과조명과거울을장치한 령매실、신령실등에 신자와안일태박사가 단두리드러가 기괴한행동을하며 그것을 신의지시라고 신자를속이엇다 그리하야 신자들은일종의최면에 걸니게해가지고 이십만원의 상납금모집을 명목으로 그동안 다액의돈을 사취하여왓는데 신자들의다대수는『마담』『미스』、화류계의 뢰기등이가 장만헛스며 그들도 불일간소환되리라한다

他人誣告하랴다 自己罪만綻露
有罪로認定、豫審廻附

【木浦】 기보─남을 무고(誣告)하다가 도로혀 자긔죄상만폭로시켜 인장위조 문서위조 행사、무고、사긔업무상횡령배임、위증、공갈등여러가지죄명으로 거월이십일일에 목포검사분국으로 송치된 목포부대성동 윤재희(木浦府大成洞尹采熙)(五二)는 결국그대로 유죄인정하고 긔소되여 지난오일에 예심에회부되엇다한다

本夫를毒殺하고 姦夫婦끼리逃亡

【平壤】 남편이 나히 어림으로써바든 성적불만이 마침내무서운죄를 범케만들엇다─ 성천군구룡면룡연리(成川郡九龍面龍淵里) 송홍걸(宋弘杰)(二七)의처 김탄실(金彈實)(一九)은 몸을마지하여 시집을왓스나 상류바와는 딴이하게 남편이아즉 도저녀새를 면치못했슴으로 동리 김태공(金太公)(二○)이란청년과 관계를맺고 지나오다가 뜰경에는 두명이공모한후 지난사월부부에밤에다량의양잿물을 섞거먹이여 독살케한후 손을마조잡고 다라낫다는데 방금소할 성천서에서는 엄정각서에수배하고 그들의행방을 수사중이라한다

局鐵"뻐쓰"를新設
貧弱한鐵道網을補足强化
來明年에實現計畫

임직이 철도국에서 계획중이든 국영(局營)『뻐쓰』신설안은최근 눈부시게 활발해진 하물의운수와교통량의증가에 자극을 바더 드듸어실시의 필요를 늣기게되엇다 그리하야 철도당국에서는 각방면의조사에착수하엿든데이 신설되는 국영뻐스는 교통운수의현상을 참작하야새로운 선로를개척하는것과 종래 민간의사영이든것을 매수하는 두가지인데시기는명년도예산은이미사정을마첫슴으로 래명년 소화십일년도예산에는기어코게상을할러이라한다 그러고뻐스의 건설비는 철도에비하야이십분지일이면넉넉하고 또근거리의 수송에는철도편보담 훨신 편리한것이어서철도국에서는 압흐로도 국영뻐스의발전을중요시하고잇스며 그 실시에따러빈약한 조선의 교통란도 만히완회되리라한다

情婦에게未練 誘引絞殺코저

갈린정부에게미련이남어제집으로꾀여다가 백주에수건으로 목을잘너죽이려든치정광(痴情狂)이현장에서 잡히엇다 시내원정(元町)일정목 구십삼번지 이전이삼랑(伊田伊三郎)(四八)은동정의카페『미도리』의 녀급으로잇는복도기누에(福島기누에)(二三)와정이드러 략삼개월 동안동거하다가 몃칠전에갈니엇는데 자는종시 단념을하지 못하고 고민하든중 륙일오후 네시경『기누에』를자기집으로꾀여다가세수수건으로 목을잘너 질식을식히엇다그러나『기누에』라는녀자가든그동무『도시고』라는녀자가 수상한 비명을듯고 즉시룡산경찰서에 달녀가고발을 하자동서원이현장에 급행하야 위려운 순간에『기누에』를구하고범인은동서에인치취조중이다

아히나어投江
逃走中에被捉

【豐山】 경북안동군풍산면상리동에서는 음식영업을하고잇든 강정숙(姜貞淑)(二三)이라하는녀자가 구월이십팔일 오후네시경에 옥동자를나어 금월삼일에 무삼일인지 그아이를 업새버리고 어데로 자최를감추엇다는데 그자세한리유를듯건데 강정숙은 본시경북대구출생으로 일즉부터 대구남산정 십사번지에 현주소를둔 김석치(金碩治)이란사람과 동거하여오다가 지금세살먹은 아이까지낫코 또잉태하엿스나 원내김석치은 일정한직업이업시 아편이나하고 가사를도라보지안음으로 부득이안동으로와서 음식영업을하는 류군금이방에서그날 그날을 지나오든바 지난여름에 대수재를 당하야의복까지나 잇든것도 다일코헤매는중에 안동군풍산면 축전동에 잇는 박군섭(朴君燮)(三一)이가 강정숙을보고 그의아름다운용모에취하야 가리사자고 간청함에강정숙은 박군섭과 살고십흔생각이 업스나 하관계지에서 살길이 막연함으로부득이 허선하고 풍산면상리동에 와서 술잔이나 바다팔고 그날그날을 사라왓스나 박군섭역시 돈이업슴으로 살수가업다는 생각으로 늘세상을 비관하고 지내왓스나 김석치에게 배여가지고온 아히가속에들어기로가도오도못하고 잇든중에구월이십팔일에순산생남하야무참히도 압강에갓난 발가숭이아이를 집어넌코 박군섭도모르게 대구방면으로 도주하든중에박군섭의 고발로 경찰에 잡히엇다고한다

出漁中暴風에遭難 漁夫七名이溺死
江原道沿海로漂流하든中에
九死一生、一名生還

【新浦】 지난오일오전여덜시(李昌律)(三)의 전하는바에 의하면 그는 지나간구월 이십구일에 함남리원군 동면장원리(咸南利原郡東面長遠里)에는 십여일전에『고등어』를 잡으려고 선원칠명과가치 배를타고성진(城津)방면으로갓든바 불행히도 바다스가운데서 풍파를맛나 배는바람에 불니여 강원도(江原道) 근해에 니르럿스나 바람은 조금도긋칠줄모르고 형세를더하야 지난십월이일에 덜생명을일흔선체는그만바다물스속에 잠기여 버리어 선체와함께가치탓든선원 金用俊 金永俊 安正祿 李泰秀 李建元 金昌俊 동일들명은 무참히도 빠저죽어버리고 긔적적으로 겨우긔착을 만든선체의 후부에자긔의 몸을 그곳에노서비끄러매인판게로 생명만을 보전하엿으나 망망대해에서구조의손은언제밋칠런지 도모르고표류하든중에괴롭만을 어긋대로 표해만든체로 긔한에 시달리어 인사불성이되엇다고한다 천행으로 함남북청군 대덕촌(咸南北青大德村)에거주하는 마모(馬某)의배가그곳을지나다가 구원을하엿다고한다 이외가튼의외(意外)의 소식에 기가막혀에종하는 눈물을 흘리는것은 참아동흘정경이며 그동리의 배진선(晉鮮號)의 배도 그배가떠나던날나간것이이내소식이업서서 대단히근심중이라고한다

雇傭사리간艾妻 主人과携手高飛
警察의處事도模糊

【雄基】 함경북도경흥군웅기읍웅긔동(慶興郡雄基洞)사는 김○철(金○哲)(三一)은 선천적약한몸으로 심혹한생활난에 그날그날의호구책에 시들어오든중 송정모(松井某)의 소개로 다소생활에 도움이될가하야어미 동업관게가잇던 라진항에사는 판교모(板橋某)의집에 사랑하는자긔안해한○분(韓○粉)(二二)을식모(食母)로 보내엿던바승생과가튼 판교는 그후얼마되지안어곳 그와불의에 관계를매젓슬뿐만아니라판교(板橋)는 한○분(韓○粉)을다리고 작년겨울에어대로 종적을 감추엇슴으로 전긔김○철(金○哲)은 분개함을이기지못하야 자미롭지못한관게를맺고 달어난 그들을차저신체의 자유롭지못한 몸에만난을 무릅쓰고 동서남북으로전전하던중 멧칠전 우연히웅긔동모처에서 사랑의 원수그들판교(板橋)와한○분(韓○粉)을발견하고 곳경찰에 고발하는동시에 법의처단을 원한바잇섯다 그러나 경찰은무삼관계인지 이는 너희끼리 할일이라하야쫏처내고 말엇슴으로 그는근일년의 장구한세월과 혈투의결정으로 간신히잡엇던 판교(板橋)가 다시금 자취를감추게되어 하날과가티밋던 경찰의 호소조차아모효력업시 수포에 돌아가고마럿다한다

編物講習盛況

【木浦】 목포부녀생활개선구락부의 주최와본보 지국후원으로지난 일일부터개최 하엿든에쓰식(S)편물강습회는다수의부녀가참가하야 소긔이상의 성황을이루엇다고한다

紅蔘密造者被捉

【開城】 개성부북본정(北本町) 칠백사십일번지허영(許迎)(五三)은 동정칠백사십사번지에서 홍삼(紅蔘)을 밀조하다가지난륙일오후 사시경에 개성서원의손에 발각체포되엿스며 증거품으로 수삼(水蔘) 십사관(貫)과 홍삼(紅蔘)반건(半乾) 삼십근을 압수하고 개성서에서는방금엄중취조중이라한다

拾得金으로 豪遊를繼續

륙일오후열한시경에 종로서사법계형사는 시내서사헌정(西四軒町) 화월루(花月樓)를 습격하고 그곳에 등루하야옥엽(玉葉)이라는 창기를 데리고류흥하고잇는 주소부정의 전귀선(田貴先)(三二)을 검거하야 취조중인데 그는수일전에 본정일정목안전은행(安田銀行)지점아페서 삼백원이든지갑을 집어가지고 그것을 쓰고도라대기다가붓잡힌것이라한다

運動競技

世界野球爭覇 第四回戰
10…4 虎軍勝
兩軍二勝二敗

【電通데트로이트六日發】 세계야구쟁패전 제사일 『타이거ー스』대『카ー디날스』四回戰는 六日午後二時半부터 『타이거ー스』先攻으로開始 結局十對四로『타이거ー』軍이勝하니 이로써二勝二敗의 同率로되얏다

對米野球戰 十四選手確定

米國野球團을마저對抗할全日本軍의陣容에對하야는 昨報한바어니와 確定된第一次選拔全衛選手는다음의 十四名이며第二次詮衡選手는 數日內로發表할터이다

【投手】 濱崎(慶應出身) 伊達(早大出身)青柴(立命館出身)스탈힌(旭川中學)【捕手】久慈(早大出身)井野川(明大出身)【一壘手】村井(早大出身)江口(享榮商出身)【二壘手】三原(早大出身)【三壘手】新富(門鐵)【遊擊手】苅田(法政出身)【外野手】二出川(明大出身)矢島(早大出身)李榮敏(延專出身)夫馬(早大)

實業庭球리ー그 嚴李組의奮鬪
總督府優勝
對殖銀決勝

京城秋季實業庭球리ー그의 覇權을다투는 總督府팀對殖銀의 決勝戰은 지난二十八日에完了할豫定이엇스나 日沒로因하야 總督府팀의勝將嚴秉律、李應麟組만을남기고、께임이中斷되엇든바 昨六日에朝銀코ー트에서 繼續擧行하엿다 이날殖銀의優退組인洪、朴組와、野副組等이嚴、李組를 相對로몰나는熱戰을演하다가 嚴、李組에게殖銀의四組모조리 慎敗하니 榮譽의覇權은 總督府가連二次獲得하엿다

【總督府】【殖銀】
×(金春榮 車應烈)2…4(崔永生 野副)○
○(嚴秉律 李應麟)4…1(藤田 神田)×
×(橫關 熊野仁)3…4(洪承武 朴龍善)○
×(日黑 渡上)2…4(李相九 李鍾鎬)○
×(春日 和栗)2…4(山西 朴東植)○
【第二라운드】
○(嚴秉律 李應麟)4…2(崔永生 野副)×
【第三라운드】
○(嚴秉律 李應麟)4…3(洪承武 朴龍善)×
【第四라운드】
○(嚴秉律 李應麟)4…1(李相九 李鍾鎬)×
【第五라운드】
○(嚴秉律 李應麟)4…1(山西 朴東植)×

神競豫選戰績
中等、專門럭비ー

朝鮮神競럭비ー中等 專門럭비豫選戰은 지난四日과六日의兩日間 龍山球場旭川球場兩場에서 擧行한바 그戰績은다음과갓다

‖中等之部‖
善隣 6 (3 3 / 3 5) 5 京中
京師 79 (51 28 / 0 0) 0 道商
養正 14 (11 3 / 0 6) 6 京商

‖專門之部‖
藥專 66 (37 29 / 0 0) 0 醫專

【養正】
FW 尹成欽 姜傑京 張永秀 馬鍾國 柳寬鉉 裵仁得 朴周夏 太一均 朱秦鉉
HB 金基燾 李乙炯 全基勳
FB 許□□ 龐奇□ 呂延英

【京商】
FW 武藤 伊藤 犬養 藤野 東海 平野 丹中
HB 稻垣 林
FB 的野 山川 山本 秋本 瀨本 河野

關西體育大會
籠、排球戰績
【第三面記事繼續】

女子排球 平女高優勝
—一回戰— 女高普A2…0正義B
正義A2…0高女B
高女A2…1女高普B
—準決勝戰—
女高普A2…1正義
高女A2…1崇義
—決勝戰—
女高普2…0高女

女子籠球 平高女優勝
平高女A36…14平高女B

男子排球 平高優勝
—準決勝戰— 崇商2…1光高
—決勝戰— 平高普2…0崇商

籠球崇中優勝
—準決勝戰— 崇商60…15光高B 崇中23…17光高A
—決勝戰— 崇中37 崇商29

天氣豫報
晴一時曇

高氣壓은 朝鮮과北海道方面으로퍼지고잇다 北滿은氣壓이낫고日本南海上에는 低氣壓이東向하고잇다 朝鮮海峽은흐리고 其他는日氣가조라 表日本一帶는비가온다 明日모日氣가조타

最高 一九、三
最低 七、五
今朝最低 七、三
今日正午 一八、二

廉價大賣出

朝鮮黃海道載寧邑前通 利善式綿打機製作所 電話一○九番 振替京城一四七六番 (謹造進呈)

조선경제는농업에잇고 농업발전은농구개량이제일인데 도급기는이중요부분에하나로서 현하유행하는 치차식도급기는 보기만조코쇠갓흔이모노라는 토철노만든부속건부속구조가복잡하야조공잡못하면따상키쉽고 고장나면적은부분하나이라도 지상한공장이아니면 수선하지못하여버리고마는두통꺼리를 임이경험해보신 제위는 잘아실것이외다 그뿐아니라 수천리에서거대한염가와 중간상인이 폭리를가하야 고등한가격으로 사서쓰시게되니불경기시대 더욱히조선농촌경제계에 잇서서 그영향이막심함을듯잇는이로서반드시고려치 아니치못하겟음니다 암에서본공장은二十여개성상을두고 농구개량을연구해오며 실지실험을 거듭한결과 우에사진과갓치개량식을새로히발명하여 임이전선은물론이고만주방면으로 다수를매출되와 국제적상품에 최고매출을하고잇싸음니다 수한주문장을청령하고잇읍니다

男女 有給社員若干名募集希望者는履歷書持參又는送付할事面談後採用함
京城府黃金町二丁目 愛國生命朝鮮支部

朝報案內

外務社員募集
時計、蓄音機 月賦販賣에從事 參給議以上夫婦同居者로서保證金三百圓及市內確實한保證人貳名을要함 希望者는履歷書携帶 午後一時부터三時까지弊店又는京城府職業紹介所로來談
京城府本町二丁目 村木時計店 電話本局四七一、四七一、四三七七

恩給 專賣的大特典 方法立替
京城 笠井町一五○ 富國昌業社

京城 金 金銀地金分析賣買 合資會社杉山商會
高價買
京城明治町 合資會社 杉山商會 電話本局七四番

福壽 독일물감 染料藥品
京城南大門通四丁目(南大門電車停留場前) 合資會社 福壽洋行直賣部 振替口座京城九三四番

皮膚病花柳病專門
醫學博士 吳元錫
產婆 金華允
安洞네거리・電車停留場前(電光二二三一)
入院隨意 診察 自午前九時至午後八時

분사실 쏘수실 재봉실 リリヤン
색실전
首陽店 京城仁寺洞七六 振替京城一七四八三

第一劇場 鍾路五丁目 光化門一七五五
十月七日낫부터三日間 回興行 七日은月曜日임으로晝夜三回 興行時間은十二時、三時半、七時半 大衆料金階下十錢均一
喜活 발이第一 全十二卷 파라마운트社超特作品
世界的名優 … 主演
松竹키네마社超特作品 어머님이그리웁지안은가 (母を戀はずや) 全十卷
吉川滿子、大日方傳、山石田 主演

優美館 貫鐵洞 電光三九五
超滿員!熱狂的歡呼滿都의讚 十月七日부터 MGM超大作全發聲
世界拳鬪王 全十一卷
猛獸王國 第二回 六卷 上映
爆笑王킹萬歲 全六卷
階下十錢均一

サロミン 사로민
胃腸病에 虛弱體에!
三十醫學博士實驗推奬
豊富한비타민、엔지ー므에强力酸菌蛋白消化菌을加함、大養胃脾强壯劑로서또新榮養劑로서斯界의賞用을博得하고잇는所以올시다
一圓五○ 五圓四○
各地有名藥局にあり

秋空一碧爽凉日

牡丹臺下의壯觀

勇躍·五百壯男健女

數萬大觀衆을陶醉식히고 關西體育大會閉幕

本社支局後援

【平壤】 작보계속=관서체육회주최와 본사평양지국후원아래 륙일오전아홉시삼십분부터 평양부내 긔림리(箕林里)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엿든 제사회체육대회는 오천여관중의 박수환호성리에서 전반경긔를 원만 맛치엇다 대회장 조만식(曹晩植)씨로부터 각우승단체와 개인에게 우승긔와 우승컵 우승『메달』을 각기수여하고 오후일곱시이십분경 대지에는 검은장막이 가리우기 시작햇슬때에 관서체육회만세삼창으로 원만히 막을다첫는데 남자정구(庭球)에는 정원석(鄭元錫) 한성춘(韓成春)조가 련삼년 우승하엿슴으로 우승컵을 영구수여햇스며 녀자롱구(籠球)에는 평양고녀(平壤高女)가 련삼년 우승하여 영예의 우승컵을 영구차지하엿다 중등륙상경긔에는 숭중(崇中)이 우승하엿고 원래의 명번숭덕(崇德)이 선전햇다 녀자정구는 숭의녀교(崇義女校) 리상긔、장인선(李尙基、張仁善)조가 결승전에 선전분패햇스며 녀자배구준결승전에서 정의녀고보(正義女高普)군 석패하여 운동장열사(熱沙)에 눈물을 뿌리며 돌아서는등 실로쪽스포츠팬들이 아니면 알수업는 장면이 순차로 전개되엿스며 따라서 모교의 응원대를 울니고 웃기엿다

각종경긔의 우승교와 개인우승자 그리고관적은다음과갓다

▲男子中等陸上競技 崇中 ▲同籠球 崇中 ▲同排球 平壤高普 ▲女子中等排球 平壤女高普 ▲同籠球 平壤高女 ▲同個人庭球 平高女 荒木、大鹽組 ▲一般陸上競技·半島俱樂部 ▲男子個人庭球 牧丹俱樂部 鄭元錫 韓成春組(連三勝) ▲軟式野球 全鎭南浦

中等陸上 崇中優勝 次位는崇商

◇트랙之部

【百米決勝】 1朴永煥(崇實)十一秒七 2韓相好(崇商) 3金裕淳(光商)

【二百米決勝】 1韓相好(崇商)二四秒五 2魯錫淳(光高) 3許學洙(寧崇)

【四百米決勝】 1許學洙(寧崇)五七秒 2崔永華(崇實) 3韋崇祿(崇商)

【八百米決勝】 1洪正煥(崇商)二分一二秒三 2韋崇祿(崇商) 3白石恩(崇實)

【一千五百米決勝】 1洪正煥(崇商)四分三六秒九 2鮮于均(光高) 3金允興(寧崇)

【五千米決勝】 1金允興(寧崇)一七分四一秒 2洪正煥(崇商) 3康英範(崇實)

【四百米繼走決勝】 1光高팀(金龍燮、羅絢成、金裕淳、金貞恪)四八秒 2崇商팀 3崇實팀

【八百米繼走決勝】 1光高팀(金龍燮、羅絢成、金裕淳、金貞恪)

◇필드之部

【走巾跳】 1朴永俊(崇實)五米九二 2林德聖(寧崇) 3白衡心(光高)

【走高跳】 1崔永華(崇實)一米六〇 2韓相好(崇商) 3金聖祿(崇實)

【三段跳】 1朴永俊(崇實)一二米七八 2羅絢成(光高) 3白衡心(光高)

【投圓盤】 1崔永華(崇實)二五米六三 2金貞俊(寧崇) 3張聖範(崇實)

【投砲丸】 1張聖範(崇實)一〇米三六、五 2金鼎俊(寧崇) 3金昌錫(光高)

【投槍】 1張海鎰(崇實)四〇米 2金正俊(崇實) 3鄭基源(崇實)

◇各校總得點順位

▲第一位 崇實中學 三四
▲第二位 崇仁商業 二二
▲第三位 光成高普 二〇
▲第四位 寧遠崇德 一四

一般陸上 半島팀優勝

【百米決勝】 1金吉成一一分六 2金濬觀 3金善玉

【二百米決勝】 1金吉成二四秒四 2金濬觀 3金善玉

【四百米決勝】 1李常榮五七秒四 2朴義鉉 3金善玉

【八百米決勝】 1李常榮二分一八秒 2金南龍 3金寶源

【一千五百米決勝】 1池永龍四分三七秒 2朴鳳水 3金能夔

【五千米決勝】 1池永龍一七分三秒 2朴鳳水 3李永煥

【四百米繼走】 1半島팀(金吉成、李常榮、崔俊煥、趙基俊)四九秒

【八百米繼走】 1半島팀(金吉成、李常榮、崔俊煥、趙基俊)一分四三秒

【走巾跳】 1崔俊煥五米七三 2柳智靑 3金寶錫

【走高跳】 1金寶命一米六〇 2柳智靑 3金寶錫

【三段跳】 1崔俊煥一二米五〇 2崔俊煥 3金寶錫

【投圓盤】 1金寶承二一米六〇 2金濬觀 3金寶錫

【投砲丸】 1李聖龍一〇米三五 2金鍾禎 3李昌華

【投槍】 1金寶命四九米五〇 2金鍾禎 3李昌華 柳智靑

女子庭球 平高女優勝 崇義含淚惜敗

=第一回戰=

○高女 荒木 大鹽 四—一 李南奎 李信玉 女高×
○高女 鄭秀榮 金春子 四—二 宮本 田口 高女×
○崇義 張敏善 金淳愛 四—〇 張敏善 韓奎三 正義×
○高女 森川 上 四—三 金永實 金慶福 女高×
○崇義 姜順金 金寶石 四—〇 淺井 興田 高女×
○高女 趙滄澤 越尾 四—二 張順愛 張善德 正義×

=第二回戰=

○女高 任順玉 張錦女 四—二 中村 友永 高女×
○女高 李甘太 朴明珠 四—〇 河野 野入 高女×
○高女 荒木 大鹽 四—〇 金順明 黃福德 正義×
○女高 金春子 鄭秀榮 四—二 李早淑 金淳愛 崇義×
○高女 甲斐 小出 四—二 李春子 韓成淳 正義×
○崇義 李尙基 張仁善 四—三 塚本 脇坂 高女×
○女高 李貞淑 李甫和 四—一 森川 上 高女×
○高女 趙滄澤 越尾 四—三 姜順金 金寶石 崇義×

=第三回戰=

○女高 李甘太 朴明珠 勝—棄 任順玉 張錦女 女高×
○高女 荒木 大鹽 四—〇 金春子 鄭秀榮 女高×
○崇義 李尙基 張仁善 四—二 甲斐 小出 高女×
○女高 李貞淑 李甫和 四—一 越尾 趙滄澤 高女×

=第四回決勝戰=

○高女 荒木 大鹽 四—〇 金甘太 朴明珠 女高×
○崇義 李尙基 張仁善 四—三 李貞淑 李甫和 高女×

=決勝戰=

○高女 荒木 大鹽 四—二 李尙基 張仁善 崇義×

男子庭球 鄭元錫 韓成春 優勝 連三年制覇

=第一回戰=

○崇實 邊應國 崔奉國 四—二 朴致鉉 洪永疇 光高×

=第二回戰=

○牧丹 鄭元錫 韓成春 四—〇 羅炳基 金靑潤 崇實×
○光高 李漢柱 邊承好 勝—棄 李制永 金九藥 崇實×
○鐵道 李昌周 田中 四—〇 文寶洙 金德冰 崇實×
○南浦 金文燁 徐昌善 四—二 金正洙 李□德 崇實×
○土木 金泰植 李鍾駒 四—一 李濟憲 尹德煥 光高×
○光高 金泰夏 金仁錫 勝—棄 大和田 大久保 專賣×
○土木 朴宗沃 朴技榮 勝—棄 李昇信 金福善 州×
○府廳 洪承杰 李鍾淳 四—〇 邊應國 崔奉國 崇實×

=第三回戰=

○牡丹 鄭元錫 韓成春 四—一 李漢柱 邊承好 光高×
○南浦 金文燁 徐昌善 四—三 李昌周 田中 鐵道×
○土木 金泰植 李鍾駒 四—一 金泰夏 金仁錫 光高×
○府廳 洪承杰 李鍾淳 四—三 朴宗沃 朴技榮 土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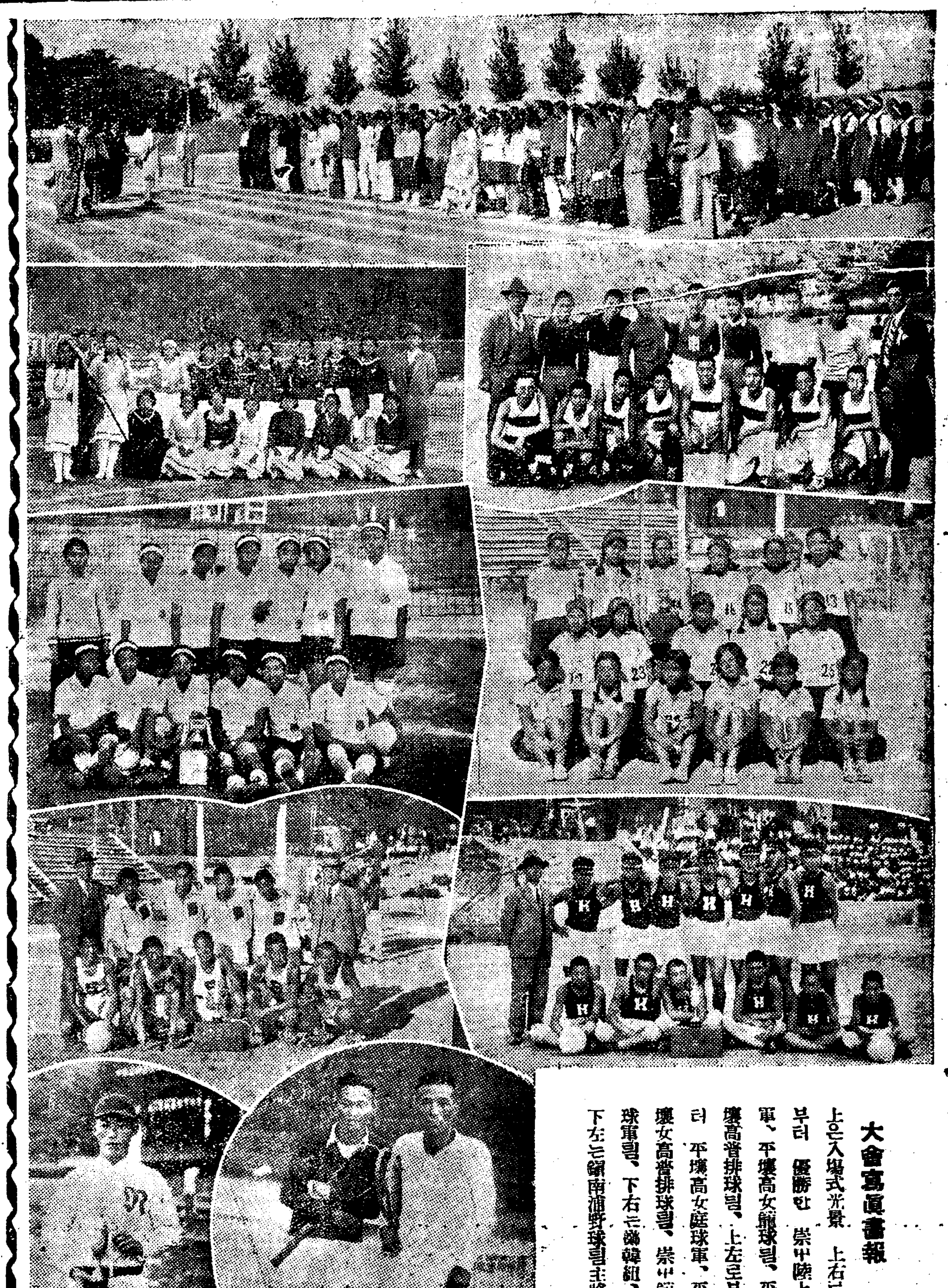
=第四回準決勝戰=

○牧丹 鄭元錫 韓成春 四—三 金文燁 徐昌善 南浦×
○府廳 洪承杰 李鍾淳 四—一 金泰植 李鍾駒 土木×

決勝戰

○牧丹 鄭元錫 韓成春 四—一 洪承杰 李鍾淳 府廳×

【籠球、排球、等의戰績은 航空便延着으로 第二面에揭載】



大會寫眞畫報 上은入場式光景 上右로부터 優勝한 崇中陸上軍、平壤高女籠球팀、平壤高普排球팀、上左로부터 平壤高女庭球軍、平壤女高普排球팀、崇中籠球팀、下右는鄭韓組、下左는鎭南浦野球팀主將

慶南의復舊砂防

勞賃十六萬圓散布

四十日間工事面積千二百町步 今後에도工事는繼續

【釜山】 희유한대홍수로재해를바든 경남일대의 각군농지가 말할수업시 피폐하엿다함은 루보한바어니와 경남도당국의 리재민구제를 목적한 사방공사는 지난팔월중순부터 시작되여 점차복구를 보게되엿다는데 지난팔월이십일일부터 구월말일까지 사십일간시행한 사방공사는 일천이백정보이며 진주、의령、함안、창녕、밀양、량산、동래、김해、창원、협천의 십개군사십면에 한하야 공사로임(勞賃)은 이 십륙만원에달하고 공사인부예사역한공민연인수가삼십륙만명이라는바 근근사십일간에 굶주린농촌재지에십륙만원의임금을산포하엿고압흐로도연인수백명의리재민을사역하야수해리재민구제에노력할작정이라고한다

水鐵里矯風會 再次義捐釀出 本報支局에寄托

【藁芝面】 용광도(□□面)의 물길가리 상천리산하에 라오르는동족애의구원의봉화가한지면 욱실교풍회로 옹기자 어린이들의 벙어리를털고 굶은이들의 참자들을 모아삼남 재지동포에게로보내다함은 련일 본지에보도되엿거니와『락옹』이란 표자를 본뜨며교풍회에서는 종터 의연품을거두워서보내겟다하야이차삼차로 것는중이라는데 시내한지면수철리(水鐵里) 교풍회에서는 구장박긔환(朴基煥)씨와 교풍회의간부들이호별방문을하야거더모은의연금십이원구십오전과 의류사점백미 오홉을본사한지면지국에긔탁하엿다

義城郡十七面에 一面一校制完成 谷舍丹北兩校新設로

【安溪】 근년조선사람의향학열은 갈사록고조되여 입학긔만되면 칠팔세의 학령아동이입학난으로 물끌틋하는이때에 오직의성군단북、사곡(丹北、舍谷)량면에서는 지방일반식자의 활동으로 금번에량면이 모다보교설립에대한 정식인가를 어더교사신축에 분망하는일방 가사옥에서볼일내로 개교할예정이라는바이로써 의성십칠면에는 일면일교제가 완성되엿다고한다

興敗의岐路에선 華陽酒組內訌

【淸道】 청도군화양면주조업계의일대권위로 웅연한 존재를가지고잇든 청도화양주조조합(淸消華陽酒造組合)은지난춘긔부터 청도주조회사의 경영을떠나조합으로 창설된지 칠개월만에약칠백원내외의 결손으로 그간총회까지 개최하야 경영내막을조사코저 하엿스나 소매전표(小賣傳票)가업서서 긔본적 조사와토의재료를 엇지못하야 정확한결손 수자조차 아지못한다하며 리사불신임등으로 총회는 류회가되엿다는데 주주 칠팔인은조합 사무취급을 숙청코저대구세무서에 련명진정까지 하얏다는바 세무서의처치 여하로는 직접경찰당국에 고소를 제긔할결의를 가지고잇다하여 사건의전개를 매우주목중이라한다

全洞婦女子가 집신신기同盟

【陰城】 우리가맨든 것으로 우리가 쓰자하는 아리따운정신의 발로!! 현하 경제공황이절정에 이른이때에 음성군음성면신천리(陰城郡陰城面新泉里)중리부인회에서는 회원전부가 모양잇는 고무신을버서버리고 집신을 삼아신는다하며 음성사회에서는 일대충동을 환긔하고잇다고한다

織叺綯索하야 夜學費用充當 中興共同作業會事業

【鎭興】 함남 영흥군 고녕면(古寧面)중흥리(中興里)에서는 작년구월 이십칠일부터 실업가윤두경(尹斗京)군의발긔로 중흥공동작업회(中興共同作業會)를조직하고 한달에 십오일간은 공부하고 십오일간은 작업하야 근검저축한다는바 작업회원은 이십세이하 청소남녀로 조직되엿다하며 가마니짜고 색기를꼬아 야학비용을 충당한외에 남은돈이 벌서 오십여원에 달한다는데이십여원으로는 부인공목작업을계획중이라한다

接踵而起하는 迷信打破運動 永興郡古寧面에서도 —神具一切를廢棄—

【鎭興】 함남영흥군 고녕면(古寧面)에서는 지난삼일중견청년들의 후원놈어터 면내신구(神具) 일체을 드려 부서버렷고 일후다시 미신자에한하야는 엄중처치할것을 동민과약속하얏다하며 일방각동리에는 부녀교육긔관을 설치하야 근본적퇴치를 실행할작정이라고 한다

慶山農會主催 農事懇談會

【慶山】 오는이십일부터실시되는농지령의 취지의 주지와농사개량을 목적으로 경산군농회에서는 경군내오선보 이상을소유한지주와 각농촌진흥조합장을모아 좌긔와가튼 농사간담회를개최하리라고한다

時日 十月十日 慶山公普校에서 慶山、孤山、押梁、安心面
十月十一日 河陽公普校에서 河陽、瓦村、珍良面
十一月十二日 慈仁靑年會館에서 慈仁、龍城、南山面

佛敎布敎堂에 覆面强盜襲擊 現金强奪逃走

【釜山】 부산영선정(瀛仙町)복천사(福泉寺)에 복면강도가침입하야 현금을 강탈도주한사건이 발생되지 일주일이되도록범인을 잡지못하고 부산서사법계에서는 백방으로 탐색중인데 륙일새벽에귀포읍내(龜浦邑內)물교포교당에 복면한 강도가침입하야 주지를 협박하야현금십여원을 강탈도주하엿다는 급보를접한 소할귀포주재소원은 부산서암전(岩田)사법주임이하서원과가리 현장에급행하야 필사적수사중이라는데 부산복도 복강도와 동일인인듯 하다고한다

建物修繕타가 三名이死傷 下碣水電工事場에서

【咸興】 지난삼일오후네시반경장진군하갈(長津郡下碣)수전공사청부 서송조배하 송본정장제이주항·(西松組配下松本丁場第二柱坑)입구좌측에잇는콩크리트공장집웅을 뱃기고보온공사(保溫工事)를 하라고 인부이백여명을 사역하여 지주(支柱)를밧치고 그동을 절단할때에 웃던지주가 어그러저집웅우에 잇든감독은 추락되여즉사하고 인부이명은중상을 당하엿는데 사상자의 주소씨명은 다음과갓다한다

住所 長津郡新南面下碣隅里 死亡 孔 龍 洙(四七)
住所 長津郡新南面下碣隅里 重傷 金 春 根(三四)
住所 長津郡新南面下碣隅里 重傷 金 貞 鳳(三六)

寫眞材料사는 怪中國人取調 要塞法違反으로送局 罰金四十圓에處해

【釜山】 지난삼십일 부산헌병분대에서 부내대청정 우산사진점에서 사진재료를 사가는중국인한사람을 조사한결과 부내초량정륙백팔번지 잡화상 한희복(韓希璞)(二四)으로 판명 되엿는데 허가업시 부내요새지대를촬영할 사진재료를 구입하는것을알자 혹은 외국인의밀정이나 아닌가하야 엄중취조를 하엿다는바 밀정의혐의는업스나 요새지대법위반으로 륙속으로 부산검사국에 송치하엿다는데 고금사진기의 인화지등 증거품을다수압수한후 략식재판에 부처륙일 벌금사십원에 처하엿는데 오는십일일에 판결언도가 잇스리라한다

松の實キヤラメル

元山支局後援의 콜럼비아演奏會 四日間大盛況裡終幕

【元山】 천야악긔점주최와본사원산지국후원의 콜넘비아예술가총출동의 연주대회는 지난달삼십일부터 사일간 당지원산관에서 개최되엿는바 매일밤립추의 여지가업슬만큼의 입장자가잇섯고 유량한음악의 소리에 가수들의 아름다운노래는 만장을도취시켯는데 사일만인 삼일밤에는 입장경품을 추첨하야입장자의마음을 일층긴장케한 분위긔속에 종막을고하얏는데 추첨결과는 다음과갓다고 한다

一等(一七二五番) 鄭用三
二等(一四二〇番) 朴景用
三等以下略

◇各地의初霜◇

長連 황해도은률군장련(殷栗郡長連)지방에는 즐지에일긔가 추어지드니 지난륙일서리가 내리엿다

朔寧 경긔도삭녕지방은 례년보다 일즉하랭한긔후로 농작물에 다대한영향이잇는동시 지난오일에는 서리가 내리엿다

地方普校運動會

▲務安郡三鄕公立普通學校 十月十六日
▲同 郡一老公立普通學校 十月十六日

虫災와乖候로 朔寧粟作大凶

【朔寧】 희유의수재와괴후로경긔도 삭녕지방조(粟)는 벌서추수는되엿스나 예상이상의 대감수로일반농가에서는크게불안중이라고한다

十月七日 (日曜)

◇午後六時(東)管絃樂(解說付) 一、玩具의交響曲…하이든作曲 二、交響曲…第六番 第二樂章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近衛 秀麿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精神文化에對하야 安 寅 植

◇同七時三〇分 音律 一、平調會像 二、吹打 三、與民樂 玄琴 金雨瑞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東)(京城으로부터) 一、揚琴獨奏『謠鮮花調』 二、曲『十二花名』 幼 良

二、臺灣歌謠曲 後絃伴奏 黃 章 田 (가)閨女歎 君玉作詞·剛 (나)落霞孤鶩 辣作曲(雪團) (다)汝害我 同· (라)密林的黃昏 君玉作詞·同(式籌) (마)姉妹心 若夢作詞 同(雪蘭)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楚漢歌 三、唱劇調 瀟湘八景(沈淸傳中) 金昌龍 鼓手丁元燮

◇同九時 獨唱과오ㅣ도하ㅣ프 (가)主는나의牧者요 리틀作曲 (나)讚美混成曲 (다)나의손을붓잡고 브릿스作曲 二、오ㅣ도하ㅣ프 安 大 善 피아노伴奏 부ㅣ쓰夫人

十月八日 (月曜)

◇午後〇時五分 大笒獨奏 一、신아위 二、새타령 朴鍾基 杖鼓 池龍九

◇同四時〇分 衛生講座 婦人病에對하야(一) 醫學博士 許 信

◇同九時 兒童劇 正義의노래 全四景 【配役】 兄…李末男 弟…朴淳榮 隣國의王子…李東亨 洞里아저씨…安永昌 使臣…康相溫 其他洞里아이들·兵士들·隣國의兵士들 新的어린會 指揮·李河宗

◇同七時三〇分 講話 社會敎化에對하야 (一) 京畿道囑託 曺元煥

◇同八時 時調와俗謠 一、時調 男唱지름 二、遊山歌 三、博物歌 四、緞歌 五、은…

十月九日 (火曜)

◇同八時三〇分 連續講談 銀燭臺 (一) 趙牧丹 金蓮玉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박타령 申秋岡 朴綠珠 鼓手 韓成俊

◇午後〇時五分 俗謠 一、愁心歌와여금 二、寧邊歌 三、西道八景 四、방아타령 五、梁山道 六、漢江水打鈴 七、노래가락 孫眞紅 孫錦紅

◇同二時 衛生講座、婦人病에對하야 (二) 醫學博士 許 信

◇同六時 童話 빼국새 金 南 柱

◇同六時二五分 滿洲語講座 (一)(덕스트使用) 張志暎

◇同七時三〇分 講話 社會敎化에對하야 (二) 京畿道囑託 曺元煥

◇同八時 仕縮風流 一、羽調 二、羽界 三、還界樂 四、界樂 五、編 자진한닙 大笒 李元成 細笛 李士殷 奚琴 金一醉 杖鼓 金一宇

◇同八時二〇分 連續講談 獨鑑 (二) 申 秋 岡

◇同八時五〇分 =京城으로부터全國中繼= 朝鮮民謠와靑年춤 一、朝鮮民謠 (가)새타령 노래=吳太石 金宗基 朱蘭香 李奇花 杖鼓 趙相鮮 (나)山打鈴 노래=吳太石 朱蘭香 李奇花 伽倻琴 金宗基 大笒 朴鍾基 杖鼓 趙相鮮 二、靑年춤 小金朱蘭香 鉦 吳太石 喇叭 李奇花 杖鼓 趙相鮮 小鼓 金宗基

◇同九時一〇分 달거리 …

아해의感氣熱에오인

オイン

感氣季節이요

特히小兒의感氣에注意

輕微한感氣、熱에도放心은禁物

小兒에大人의藥은危險!아해에는반다시아해專門藥을주십시다

熱에는オイン이第一安全히服用되고쑥쑥解熱되오(安全하고副作用업슴이特色이요)

主效 感氣、熱 麻疹、肺炎 百日咳 其他熱病

定價 二十錢、三十錢 五十錢、一圓

發賣 大阪東京 丹平商會 各藥店にあり

腦神経病에 健腦丸

獨自의綜合作用으로、腦神經의疾患을快癒하고記憶理解力、을增進하며頭腦를健全히함

頭痛 速히腦의疲勞素를排除하고血液의循環을빠르게하야서不快한頭痛、眩暈을解消、心身爽快

便秘 鬱血하야、腦의作用은鈍하고常習的便秘는早老케함、健腦丸은便排便을조케하고上血을마금

不眠 疲勞가加重 머리가呆然하야모-든 能率이低下함 健腦丸은 잘安眠케하고翌朝爽快됨

憂鬱 히스테리-에모저 健腦丸、不安焦燥 倦怠를除去 頭腦輕快 心神明朗 活力更生

特長 健腦丸은連用하여도副作用업고常備藥으로하면可恐할中風卒倒를未然에防止

藥價 五十錢으로十圓까지

醫學博士 島村 健腦丸 腦病 良藥 KENNOGWAN

發賣 丹平商會 各地藥店에잇슴

三南水害義捐金品

▲本社接受―七日正午까지整理分▼

現金累計 三萬八千五百九十四圓六十四錢

物品累計 八萬一千五十九點

本社金浦支局經由分

一金二圓四十三錢 陽川公立普通學校兒童一同

衣類十三點 內譯 富川郡桂陽面取扱分

三點 桂陽面朴村里 朴光遠

八點 桂陽面上野里 金容德

二點 桂陽面[illegible]里 朴大奎

本社古邑支局經由(第四回分)

一金二圓三十錢

內譯

盧軍石 十錢 洪平煥 十五錢 朴昌揖 十錢 盧義根 十錢 洪仲孝 十錢 文尙弼 十錢 洪貞煥 十錢 韓國欽 十錢 洪鳳煥 十錢 朴孝完 十錢 李女奎 十錢

韓英混 十錢 盧道根 十五錢 方甲得 十錢 韓德彬 十錢 姜龍瑞 十錢 承泰柱 十錢 盧德甫 十錢 李龍洙 十錢 康亨道 十錢 金義植 十錢 金鵬壽 十錢

本社青丹支局經由分(第三回)

一金五圓

內譯

閔泳卓 十錢 閔培植 十錢 閔運植 十五錢 閔德植 十錢 閔大植 五錢 閔範植 十錢 閔海植 五錢 閔圭植 十錢 閔和植 五錢 閔丙圭 五錢 閔丙國 五錢 閔淳植 十五錢 閔東植 十錢 閔丙昇 十五錢 閔碩基 十錢 閔丙徽 五錢 閔丙睦 五錢 閔賢植 十錢 閔丙錫 二十錢 閔承植 二十錢 閔斗基 五錢 閔丙鳳 五錢 閔丙壽 十錢 閔丙在 五錢 閔丙大 五錢 閔興植 二十錢

閔巳姙 十錢 閔丙春 五錢 閔丙雲 五錢 閔丙龜 五錢 閔世植 十錢 閔斗山 四十五錢 閔漢植 五錢 閔丙來 十錢 閔丙夏 十錢 朴明瑞 十錢 韓東洙 五錢 閔善植 五錢 閔根植 十錢 閔丙台 五錢 韓敬錫 十錢 韓明洙 五錢 韓宗洙 五錢 韓萬洙 十五錢 韓富興 五錢 韓德洙 五錢 李立粉 十錢 韓應敎 十錢 韓龍成 十五錢 韓孝基 十錢 李五俊 十錢 金泰和 十錢

本社保寧支局經由分

一金三十一圓二十錢

內譯

金敬培 一圓 丁福燮 二圓 崔東甲 一圓 尹柄善 一圓 金聖三 五十錢 朴啓元 五十錢 姜子鉉 五十錢 李聖學 三十錢 田在遊 五十錢 金仁洙 二十錢 朴明善 五十錢 崔成道 五十錢 朴順萬 五十錢 劉重烈 三十錢

崔致龍 十錢 河泰炳 五十錢 宣成順 五十錢 崔洪植 五十錢 吳秉根 三十錢 徐聖業 十錢 徐聖錫 十錢 朴正寬 二十錢 吳有根 二十錢 劉信基 五十錢 千炳國 五十錢 姜子馨 十錢 趙良和 十錢 劉克昌 五十錢 金青根 十錢

李良點 二十錢 鄭鳩鉉 十五錢 尹攀炳 十錢 權寧弼 十錢 洪性堯 二十錢 李景年 五十錢 丁奎喆 五十錢 禹箕命 一圓 李深然 三十錢 崔秉尙 五十錢 下田下之助 五十錢 尹甲善 一圓 李應淳 五十錢 金和仲 十錢 尹聖學 五錢 朴正奉 五錢 金東玉 五錢 尹鎭榮 五錢 李永俊 五錢 羅信錫 十錢 金永培 十錢 尹相哲 十錢 劉載行 十錢 劉仁成 二十錢 洪在淸 二十錢 朴廷學 二十錢 兪鳳載 十錢 朴鉉直 五錢 李完求 十錢 李順在 三十錢 尹相悅 五錢 洪泰敬 五錢 金三奉 五錢 趙鉉求 十錢 金成萬 五錢 趙東龍 五錢 田龍鎭 五錢 張永岩 二十錢 吳國煥 五錢 金學善 五錢 金龍善 五錢 朴榮斗 十錢 金商潤 十錢 李相基 五錢 金敏基 五錢 裵成玉 三十錢 金昌植 二十錢 成五秉 五錢 尹鳳學 五錢 李相五 五錢 田平俊 二十錢 黃昇益 五錢 朱一鎬 十錢 禹顯九 十錢 金鍾萬 二十錢 李道鉉 五錢 柳文植 五錢 李永宇 五錢 柳秉甲 十錢 申錫奉 十錢 韓昌錫 十錢 任毅宰 十錢 姜友善 十錢 金重宰 五錢 李德而 五錢 金明三 十錢 洪學三 五錢 鄭淳命 五錢 尹學根 十錢 兪致永 十錢 尹喜永 十錢 姜喜三 五錢

金學甫 五錢 金明三 五錢 田相弼 十錢 李奎培 十錢 金聖寬 十錢 金八根 五錢 朴仁和 十錢 朴永春 五錢 金俊敬 五錢 金裕鎭 五錢 尹炳昌 五錢 金聖夏 五錢 洪龍杓 五十錢 李鳳龍 十錢 朴在洪 十錢

金元濟 十錢 千炳術 三十錢 金鍾磐 十錢 洪祐杓 十錢 金俊五 十錢 全宗燮 二十錢 金泰亨 十錢 尹鍾述 十五錢 姜允秉 五錢 丁奎七 五錢 黃世鉉 五錢 金甲洙 五十錢 禹顯德 十錢 栃木丈太郎 一圓 金龍獻 十錢 洪鍾夏 十錢 朴浩善 二十錢 崔永鉉 二十錢 李殷明 十錢 林商洙 三十錢 黃昇燁 二十錢 尹鍾城 十錢 李鍾泰 一圓 金炳夏 二十錢

本社長淵支局經由分

一金十三圓二十六錢

內譯 長淵郡長淵面 私立泰昌學校職員學父兄及生徒一同

金孝敬 一圓 白在鳴 一圓 金正岩 三十錢 金善心 五十錢 白昌贇 五十錢 閔順愛 三十五錢 金善敬 三十錢 金淵默 二十錢 金是淵 二十錢 安永昌 十五錢 金京友 十錢 金在連 十五錢 李昌善 十錢 元永奎 十錢 孫亭基 十錢 鄭仁燁 三十錢 呂俊九 十五錢 金禎殷 十四錢 李張順 十三錢 任雲善 十一錢 高文弼 十錢 金永煥 十錢 洪順愛 十錢 金燦鏞 十錢 金秉郁 十錢 金秉郁 十錢 金致善 十錢 孔龍九 十錢 金在喆 十錢 李秉淳 十錢 元學洙 十錢 崔宗植 五錢 金裕善 二十錢 金在善 十五錢 金明元 十一錢 張順寬 十錢 劉七星 十錢 金永漢 十錢 黃正弼 十錢 高文淳 十錢 李秉勳 十錢 金應汰 十錢 鄭金植 十錢 金元玉 十錢 金慶雲 十錢

裵賢常 十錢 金秉喆 十錢 朱汝俊 十錢 元永玉 十錢 林成俊 十錢 李京鎭 十錢 金應汝 十錢 金俊根 十錢 朴振植 十錢 崔應奏 十錢 姜昌云 十錢 鄭仁子 二十錢 朴奎萬 十五錢 金亨燦 十五錢 崔京鎭 十五錢 金允默 十二錢 金成祿 十錢 金元弼 十錢 韓道俊 十錢 金東殷 十錢 申金女 十錢 鄭吉先 十錢 金種子 十錢 金京愛 十錢 應允洙 十錢 金京淵 十錢 安興元 十錢 裵賢貞 十錢 尹昌祿 十錢 朴鍾根 十錢 趙春信 十錢 趙西吉 十錢 金明元 十錢 金允甫 十錢 金益壽 十錢 元永河 十錢 金範洙 十錢 金永憲 十錢 李允鎭 十錢 洪萬吉 十錢 李承俊 十錢 宋元燦 十錢 全萬義 十錢 李德裕 十錢 金元珏 十錢

本社開城支局經由分(第九回)

總額은十月四日附已爲發表코만今日內譯發表

一圓六十錢 內譯 松都高等普通學校生徒一同追加分

趙鏞夏 一圓 金正奎 一圓 林有根 一圓 朴瀚榮 一圓 朴昌植 一圓 韓基玉 六十錢 李文奎 五十錢 朴泰善 五十錢 禹相源 五十錢 禹壽德 五十錢 崔仁鎭 五十錢 金興淳 五十錢 崔漢宣 五十錢 金命煥 五十錢 金大鉉 五十錢 林光善 五十錢 金俊鎬 五十錢 兪鎭晟 五十錢 金基運 五十錢 金基孝 五十錢 張福祿 五十錢 玄東植 五十錢 韓鎭三 五十錢 梁亨泰 三十錢 馬昌圭 三十錢 金顯談 三十錢 李鳴鳳 二十錢 金應煥 二十錢 王光赫 二十錢 金用漢 二十錢 趙文淵 二十錢 金應何 二十錢 金貞烈 二十錢 崔承崑 二十錢 張始炯 二十錢 朴致明 二十錢 陳有聞 二十錢 朴沙現 二十錢 金鎭五 二十錢 金時成 二十錢

崔錫瀍 二十錢 柳玎 二十錢 韓順龍 二十錢 秦炳律 二十錢 崔濟天 二十錢 尹明植 二十錢 李源三 二十錢 李商周 二十錢 馬成一 二十錢 朴膺善 二十錢 金鎰煥 二十錢 朴洙鍌 二十錢 張点玉 二十錢 이[illegible] 二十錢 金德重 二十錢 潘熙謙 二十錢 張星汝 二十錢 白潤用 二十錢 崔鳳植 二十錢 全在德 二十錢 崔基一 二十錢 張始欽 二十錢 金大容 二十錢 金學甫 二十錢 金順任 二十錢 白南玉 二十錢 洪鍾浩 二十錢 申龍山 二十錢 李興雨 十錢 趙鳴鍾 十錢 尹承勳 十錢 金成福 十錢 吳官根 十錢 朴宜根 十錢 李熙圭 十錢 李元奉 三十錢 張仁瑞 三十錢 洪光成 五十錢 具俊謨 二十錢

本社開城支局經由分(第十回)

一金三十圓六十五錢

藥品 五百點

衣類 十二點

內譯 滿月町槿代徐廳募集分

馬玄圭 五圓 禹太淵 二圓 尹根植 一圓 崔光一 一圓 金永河 一圓 李鎭敎 一圓 河承烈 一圓 張亮漢 一圓 兪致晩 一圓 靑龍煥 一圓 朴命珪 一圓 金命鳳 一圓 金基善 九十五錢 李一心 五十錢 禹時寅 五十錢 李時龍 五十錢 韓南洙 五十錢 河順杭 五十錢 朴貞萬 五十錢 徐丙杓 五十錢 崔基洪 五十錢 廣興商會 五十錢 金基晥 五十錢 金命福 五十錢 金鵬烈 五十錢 崔光鎭 五十錢 全圭錫 四十錢 成貞一 三十錢 金在喆 三十錢

李元淳 三十錢 李洛均 三十錢 秦柄肇 三十錢 洪東杓 三十錢 申昌稐 三十錢 韓文洙 二十錢 許杉 二十錢 河承俊 二十錢 韓順日 二十錢 靑以煥 二十錢 馬鍾盛 二十錢 金興龍 二十錢 禹永淵 二十錢 孫啓民 二十錢 李泰鎬 二十錢 尹鎭豐 二十錢 孫宗成 二十錢 金東熙 二十錢 朴相春 二十錢 李尙義 二十錢 洪在壽 十錢 金壽鳳 十錢 張善慶 十錢 權興圭 十錢 積善舘 十錢 馬信圭 十錢 金基禎 十二點

保生堂藥房 朴光秀 靈神丸五百個

開元人蔘商會藥品部

現金小計 八十四圓八十四錢

物品小計 五百二十五點

長篇小說 艶魔 (100)

徐東山 作 金奎澤 畫

실人족(失足)(3)

「그러나 말이야」

하고 대섭은 인제 정말 본제로 드러간다。

「당신이 가서 엄벙만 눈을 질끈감고 이재석이안해노릇을하구려 응?」

우연만한 녀자가트면 가령 거절을 아니한다하더래도 조금의주저는 잇섯슬것이다 그러나 그때부터――아니 그전부터――서광옥이에게는 그런것은 검바다에 굽너저잇는바둑돌하나만큼도 거릿김이 아니된다

「그래볼가?」

그는 대번 이러케 대답을하되 눈하나 깜박하지아니한다

「그래 그러케 가기는간다고하고……돈은 어떠케 글거내야할고?」

인제는 밥서 돈글거낼 제이단의 문제로 드러갓다 그러나광옥은 그의견을 대섭에게 못는것이 아니다 말만해노코 눈을 까막까막하며 천정을 올녀다보고 누어잇는 그의머리속에는 장차에 해나갈 일의론파이 드러서는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그동안 어떠케할려우?」

「나? 나야 지금도 내려가는마다 그새넘이 자긔집에 와서 잇스라고 조르는터이니 핑게삼어 잘되엿지」

「흥! 애인을 데리고 시집을간다! 재미잇서……」

「그러치만 거기 정말 맛처서 되려나를 오쟁이를 지어서는 안되네」

「그거야그때가서보아야알지」

이튿날로 대섭은 강화로 내려갓다。

리재석은 밤서이사람이 돈를 도청하러왓나부다고 못맛당하게생각하엿스나 한편 각가온 친척도업는터에 이러케나마 차저오는 그가 반갑지아니한것도 아니엇다。

저녁밥상을 마조맛고안저서。

「형님 참 아직 저러케 젊시고 하자면 어데 맛당한 기도하시고 도회히도 거두테귀수를좀 간택해보시지요」

대섭은 위선 이러케 수작을부처다

「글세……나히 며 사십이다되엿는데 혼자지냄늘 어쩌리만 저년때문에 거 걱정입세」

기실 전전에도 이러한 의미의말로 이종에게 장가가고십다는 눈치를 보엿든것이다 그리고 녀학생들의 거동과몸맵시를 칭찬하엿고 또 우리조선가정도 개량을 하자면 식잇는 주부가 드러와야 한다는것을 역설하엿든것이다

「십상은」

하고 대섭은 파고드러갓다。

「제가잇는 집주인이말을하는데 아주맛당한 규수가하나잇스니어대중매를서라고그래요」

「응?」

「양사ㅅ골사는 서씨집 맛딸인데 집안이 그다지 넉넉치는못하지만 양반의후예라 가도가잇고…또 규수가 서울서 손곱는 미색이래오」

「응 응」

이번에는 응소리가 두번이 걸허나온다 대단 맘이 당긴다는 뜻이다

「그런데 또 금상첨화로 작년봄에 ××녀학교를 아주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햇지요」

「호홍! 나히는?」

「열아홉이라는가버요」

「이사람아 그러케 아직 어리고 또 도-저한 규수가 우리가튼 노실랑한데로 올라고하겟나?」

넘우 입에맛는 떡이니 한번 겸사말로 다지어보는것도 사람의상정이다

이러케 되고나면 그야말로 만사 OK다。하기야 그때는 OK란말은 업섯지만。

강화서 위선 서울로 매파가갓다。

서울서 다시 선을보러 강화로 내려갓다

한편은 서울서 손곱는 녀학교졸업생의 미인이요(그때쯤만도여학교졸업생이면 당당햇스니까)한편이 강화의 오랍만원짜리 졂은부자니 어데 타발잡을곳이업는것이다

하물며 신부될규수가 일언지하에 OK니까――

신식결혼을 돈은 만히드려서 아조 단출하게 거행하엿다(돌너리의 한사람은 유대섭이가 섯고!!)노실랑의 입은 담으러질 사이가업시 벙실벙실하엿다

어엽분 신부는 새실랑과한가지로 애인을 데리고 강화로 내려갓다

리재석의 귀염이 광옥의 몸을 칭칭 감고도 땅에까지 흘러내렷다

광옥은 정은 아직 옛애인에게 잇다하더래도 새남편에게 또한 은근히하기를 잇지아니하엿다

조흔 팔자다 한집에서 두남편을 거느리고 그리고도 귀염과 사랑속에서 파뭇처지내니 부러운 팔자다

洪城

三南水災活寫大會

▲時日 十月八日밤六時부터

▲場所 廣川市

映畫種類 三南水災映畵、全京城幼稚園遊戲會와敎育映畵인石炭、植物의神秘性其外數種

◇主催 朝鮮日報社洪城支局

◇後援 廣川有志一同

水原

金剛山探勝團募集

△時日 出發＝十月九日午後七時五十六分 歸還＝十月十五日午前九時六分

△會費拾五圓 (汽車、電車賃及食費)

◇主催 朝鮮日報社水原支局

◇後援 水原驛

結核患者의 胃腸障害는

普通胃腸病과同一取扱안됨

發熱과盜汗等과가치 胃腸障害는 結核菌에부터단인다할만큼 患者의누구나苦惱하는症狀이요 몬저食慾不振으로 마음대로食事가안되고 食後오래腹部에飽滿感이남어잇소。胃痛과腹痛을 늣길만큼殆히 普通胃腸病과달으지안코나 가장괴로운것은、

便秘가되고或은 又灌漏가자진 것이요

그結果、發熱과盜汗을憎惡케하고 喀血을일으키며 榮養不良에빠지는故로 體力의衰耗를일으키고 病勢를惡化식히는것임으로 消化劑、健胃劑、整腸劑等을써서 이것을 除去하려고 焦燥함은 患者의 거우共通性이요 그러나 [illegible]가 안나고 不安、焦燥、終末에는 神經衰弱을일으키여一層治療를困難케하는例는 늘보는바로서、그도그럴늣한것으로서 結核患者의 胃腸障害는普通胃腸病의 原因以外에、結核菌의生産毒素의 作用이加해진特別한症狀임으로 結核菌의勢力이挫折안되는限에、對症療法만으로障害가救助될일은업소 이것을 救하려면本病의

結核에도胃腸에도 有効한療法을

行치안어서는 안되나 아신바와가티 結核에 對한 有効療法은 全身의 榮養을 올리고 抵抗力을 增强식힘이 第一로서自然히榮養物을多量히攝取할必要가잇슴으로、胃腸에過重한負擔을强請한矛盾이잇고、그러타고하야서、胃腸을休養식히는意味로 普通의胃腸病에잘減食할도、榮養上結核菌에侵入할틈을주는危險이 잇슴으로實行되지못하오。그러면結核의胃腸障害는아조救助안될가。決코그런일은업고 簡單한듯하나榮養と育兒の會의「錠劑わかもと」의服用等은單只一劑도、이結核患者의懊苦를 救하여주는效果가잇소 이藥은在來의化學的對症藥과는根本的으로 틀이新生物製劑로 人體를 組織하는全細胞의新陳代謝를旺盛케하고 病憊된細胞에新生의活力을주는 酵素를비롯하야 血核菌의毒素의解毒에有用한구리고겐과비타민B喰菌作用을增加식히는리바ー제等의特殊成分의含有에依하야結核菌의勢力을挫折식히는綜合効果를가지고잇다

近來에는酵素療法이란말까지생긴만큼잘아실거시나

酵素는人體活動力의 源泉으로서

以上의作用外에도 食物의消化吸收를잘하고胃腸을機能的으로賦活식히는等의 作用도잇소 그럼으로「錠劑わかもと」를服한즉 몬저胃腸障害의重大原因인結核毒素가制禦되고一方食物의 各成分이잘 消化吸收됨는勿論胃腸는 機能的으로 活潑히 됨으로 種種의 不快苦痛인結核性의胃腸障碍로도、잘救하여지는바요。特히김분것은이藥의[illegible]作用으로、[illegible]時도反對의便秘에도、生理的快便으로回復식히는效力은勿論이나、이것은어느거나胃腸의機能이本來의바른軌道에도라오게된것임으로、食慾、消化도조코、榮養도無用함이업시 吸收되는것이요。

混食과胃腸

[illegible]天然素에 水果等과 無機物等의 營養을豊富키 爲하야各 務研究所에서는 試食實驗을行한 結果、混食으로依하야 特殊한毒素가 나오는것은보이지안코、一種이라도、不消化、또는腐敗키쉬운것을過食하면옴으로往往히過食症狀이일어나는것이認定되얏소。

그럼으로、胃腸의消化機能이活潑하게되면、그런食物을먹드라도、殆히無害하고、反對로消化機能이活潑치안흐면、아무러치도안흔것까지、相應되야害로운일이잇슴으로、恒常「錠劑わかもと」를服用하야서 食慾、消化便秘의調和를圖謀토록對합니다

그外「錠劑わかもと」는脂肪、蛋白、비타민、無機物等各種의榮養素를가지고、食物의榮養을도웁으로、抵抗力을强케하고結核을治療토록하는效果가여러가지方面으로나타날것이요。

自宅에서도되는 사나토리움의效果

結核病學者로서世界的으로有名한獨逸의 부레ー멜、데토와이엘兩氏는、自己의 肺結核을고친體驗을基礎로서? 西曆一八五九年頃부터 天然自然의治療效果를利用하야서 衰弱한患者의抵抗力을昂進케하고、結核病을病原으로부터

治癒케하는自然療法을 提唱하야、結核治療法의新機軸을齊來하엿소。

現下歐米는勿論我國에서도、高原地方에 結核療養所를만히設置하야、轉地療養에도이런地方이主로選擇됨는、要컨대부레ー메르氏等이唱導한自然療法을、잘効果的으로 行하기爲한것이오。

그리면大體、結核을治療하는天然自然의治療効果는、무엇이냐한즉、潤澤한日光、淸淨한外氣、榮養에豊富한食物이 그主要한것이요。몬저

日光의効果로는、衰弱한全身、特히肺臟의組織細胞를刺戟하야 그機能을昂進케하고、白血球의喰菌作用을旺盛히하며 或은、體內에비타민D란榮養素를生成식히여、病菌에對하야抵抗力을顯著히强壯케하오。

또外氣體의效果로는 例컨대高原에올기면冷凉한外氣가刺戟되고、海濱이면오존에豐富한海風에刺戟되야서、新陳代謝가活潑히되고、食慾이增進、消化吸收作用은圓滑히되고、榮養物의攝取와相俟하야서、全身榮養의充實이圖謀하야지오。

그런바、이有効한自然治療効果도媒煙、塵埃等에非常히妨害되기쉬워소。

都會地나一般住宅으로는効果가薄弱하게되오。그럼으로、特殊한設備를하든지、그런妨害되지안는海濱과高原이 療養의適地로되야잇는것인바、轉地하든지、療養所에들어가든지하는분은、限定된少數의人으로、大多數의사람들은、亦是自宅에서의療養을하지안호면안되오。

그러나、今日에는、無理하고까지轉地치안트라도、自宅에잇스면서 前記自然療法의效果가어더지는 別種의療法이發見되얏소。

그는 新生物製劑『錠劑わかもと』를服用하는療法으로 이藥의主要한特長은化學藥劑와달나서活性酵素와 흘몬이多量임으로肺나胃腸은 根本부터全身의衰弱細胞에 直接活動하야 機能을再生식히오。

이것을學問上으로 細胞賦活作用이라하는바 「錠劑わかもと」에는 그外에도日光浴으로엇는것과갓흔비타민D는勿論、그A、BCE로부터 脂肪蛋白質無機鹽類에일으기까지 豊富한榮養素나

食慾을急進식히여 消化吸收를돕아이는 消化酵素解毒의 効果잇는 구리고ー겐、結核毒素를 中和하는지스진等도 豊富히 含有되야잇소。그럼으로 自宅療養者도『錠劑わかもと』를 服用하고잇스면 그들의 綜合効果에依하야 榮養이昂進하고 抵抗力이增强하야、異常한機能은 正常으로 回復되야서病菌의勢力도挫折되고結核의諸症狀은原因이除去되는셈이되오。

『錠劑わかもと』는二十五日分一圓六十錢 携帶用小瓶五十錢、八十三日分五圓으로一日數錢도못되는廉價로 東京市芝公園大門際、榮養と育兒의會(振替東京一七〇〇番)에서 頒布되야 全國藥店에도잇스나、右藥價만보내면送貨는 會의負擔으로急送함

療病實話

過勞와感氣로 肺까지犯하엿다가

(北海道) 中田一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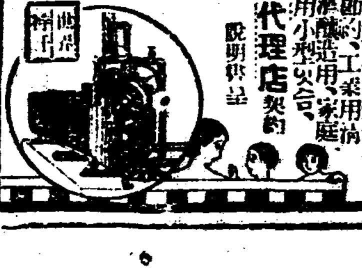
(前略)나는 十七歲時、雨中作業、過勞로드되여 感氣를걸려五日間寢되직、身體가압푸고、밤에는기침이나서 發熱、盜汗으로苦痛當하고、醫師의診斷을바덧더니 氣管支炎이라말하야(中略)그後에漸漸繼過가납버저송。그리하야드듸여 肺까지侵하얏슴으로、여러가지養生法을햇스나(中略)漸漸납버질뿐、只今까지新聞과廣告等보지안혓는데、보게되고、東京에肺藥이잇다하야、小包로사다가服用하얏소。

一時入院하얏스나、오래걸임으로 家庭의形便으로、退院하얏소、그런가운대집에어머니나누나가、胃肺에조흔「錠劑わかもと」누가조켓다고하야 半信半疑로當地의藥店에서 求服하엿더니暫時는아무런反響도업섯소。

그러나、누나와어머니에效을바다힌것服用을게속한中에漸漸몸이便히되고、밤이只今까지아조안에히다가、먹고십게되여、어머님을놀내게하얏소。

(中略)나는밤서安心하고服用하게되얏소。

그런가는대 顏色도漸漸조케되고、食慾은增進됨으로、여러가지滋養物을마히 먹엇소。몬저는秘便이납벗스나 只今은조케되고、밤서눈을에저진잡자리에서일어나散步쯤은 할수잇게되고假復도在邇하다고질거하고잇소。



大門高速度濾過機 浴場用

陸海軍御用

浴場用 汚濁惡臭除去 湯沸節約 用途廣汎 工業用、家庭用

說明書呈 代理店募集

元賣所 東京芝公園 大門製作所